

금호타이어 기사회생... 中 더블스타로

매각 투표 60.5% 찬성... "떡볶이·고용 안정대책 강화" 목소리
새 주인 더블스타 6463억 유상증자·채권단도 2000억 수혈

금호타이어가 중국 타이어기업인 더블스타에 팔린다. 지역 경제계와 타이어업계는 '고용 불안'과 '떡볶이'를 우려하는 시각이 여전히 강하다. GM, 쌍용차 등 해외 매각된 국내 기업들의 사례를 고려한 고용안정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기사 3·14면〉

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광주공장 운동장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 특별합의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광주·곡성·평택공장 전체 조합원 2987명 중 2741명이 투표에 참여해 1660명(60.5%)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1052명(38.3%)의 조합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노조는 지난 30일 오전 집행부 회의를 거쳐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노조는 같은 날 오후 최중구 금융위원장, 이동길 산은회장, 윤장현 시장 등 정부·채권단, 광주시 등과 만나 '더블스타로부터의 자본유치와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상호 합의하고 조합원 투표를 거쳐 결과를 채권단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더블스타로 가느니 법정관리가 낫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데는 법정관리를 통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 일반직 직원들과 협력업체들의 해외매각 찬성 움직임에, 청와대까지 나서 압박한 게 결정적 역할을 했다.

청와대는 자율협약 종료기한인 지난 30일 "대통령의 뜻을 알릴 필요가 있어 전한다"며 "정치적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청와대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불가피하게 30% 내지 40%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문제에 어려움이 따르고 또 공장이 있는 광주·곡성·평택 지역 경

제에도 커다란 손실이 오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옛 노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할 때"라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가 조합원 60%의 찬성률로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노조의 동의를 얻게 되면서 더블스타와 본격적인 경영정상화에 나설 전망이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본계약을 체결하면 금호타이어 지분을 45%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금호타이어는 더블스타의 유상증자(6463억), 채권단의 신규대출(2000억)으로 8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 신

규 시설 투자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법정관리 문턱까지 갔던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의 자율협약 연장과 자금수혈, 노조의 고통분담, 더블스타의 투자 등으로 경영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노조가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동의하면서 금호타이어는 지난 1960년 '향토기업'으로 설립한 지 58년 만에 외국 기업에 넘어가게 됐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사는 2일 오전 11시 광주공장에서 '경영정상화 및 단체교섭 조인식'을 갖고 해외매각과 자구안에 최종 합의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가 1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중국 타이어기업인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동의했다.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이 1일 광주공장 대운동장에서 해외매각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장 단일화 '회오리' 전남지사 3자 대결 '각축'

■민주당 경선 이번주 분수령
광주, 강기정·민형배·최영호 단일화
윤장현 시장 가세 여부 주목
전남, 김영록·신정훈·장만재 공방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전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반(反) 이용섭 연대' 후보 단일화 파장 그리고 이용섭 예비후보 측의 당원명부 유출 의혹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경선 판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지사 경선전은 보름여 동안 입당 여부로 진통을 겪었던 장만재 전 전남도 교육감이 지난 30일 입당하면서 김영록·신정훈 예비후보와의 3파전이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장 경선=강기정·민형배·최영호 예비후보는 1일 광주 총장으로 광주 우체국 앞에서 단일화 선언식을 가졌다. 지난 30일 단일화에 합의한 세 예비후보들은 3일까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단일 후보를 결정하고 정당과 의회, 시민세력을 지방정부 시대의 새로운 정치 주체로 세우는 '시민공동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안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단일화 선언문을 통해 "광주와 함께 살아왔고, 시대정신 구현에 앞장서 온 세 후보가 뜻을 모아 이 후 첫 지방선거를 광주정치의 새 출발점으로 만들고자 함께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자치분권 시대 광주지방정부의 역동성 구현 ▲광주성과와 시민행복의 공동목표에 헌신 ▲헌법정신이며 광주정신인 5·18정신 구현에 앞장 등 3가지 공동비전도 함께 발표했다.

이들의 단일화 합의에 따라 7명에 달하던 예비후보 숫자는 이들 단일후보와 양향자·윤장현·이병훈·이용섭 등 5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여기에 윤장현 시장까지 단일화에 긍정적이어서 합류 여부가 주목된다.

후보 단일화는 '광주시당 당원명부 유출의 책임을 이용섭 후보가 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후보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80년 5·18 이후 민주화 운동에 뛰어든 학생운동권 출신의

신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는 호남인의 믿음과 지지를 배신한 안철수식 정치를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견인할 '개혁 전진기진기 탈환선거'로 규정한다"며 대선 당시 안철수 초청강연을 연 장 전 교육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 전 교육감은 "안 대표의 특강은 교육적 행위였다"며 "네거티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세 후보는 현재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 자리를 나눠 가질 만큼 지지에서 호각세를 보이고 있어 경선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과 함께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된다.

386세대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였다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일 후보 확정 여부에 따라 경선 판도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양향자·이병훈 두 후보는 단일화 추진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이다.

후보 단일화와 함께 광주시장 당원명부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주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수사결과에 이용섭 후보의 직접 관련성이 언급되고, 만약 이후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경우 치명타를 입게 된다.

당원명부 유출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기소된 입지자를 광주시장 후보로 내세우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용섭 후보가 기소되지 않더라도 이 후보 측 관계자들이 기소될 경우 경찰수사 내용에 따라 지금의 1·2위간 지지율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전남지사 경선=장만재 전 전남도 교육감의 입당이 지난 30일 민주당 최고 위원회에서 승인되면서 전남지사 경선은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장 전 교육감의 3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장 전 교육감은 입당과 함께 공천 신청서 해당(德藏) 행위와 관련한 별도의 서약을 제출하기로 했다. 사실상 조건부 입당 승인으로 이는 당내 반대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로 인한 후보간 네거티브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조건부 입당'이 허용된 장 전 교육감에 대해 "대한민국 정당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서약서 예비후보'가 탄생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는 호남인의 믿음과 지지를 배신한 안철수식 정치를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견인할 '개혁 전진기진기 탈환선거'로 규정한다"며 대선 당시 안철수 초청강연을 연 장 전 교육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 전 교육감은 "안 대표의 특강은 교육적 행위였다"며 "네거티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세 후보는 현재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 자리를 나눠 가질 만큼 지지에서 호각세를 보이고 있어 경선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과 함께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조용필 ~ 레드벨벳 예술단 평양 공연 뜨거운 열기

1일 오후 6시30분 동평양대극장에서 남한 예술단의 공연이 열렸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은 지난 2005년 류경정주영 체육관에서 개최된 조용필 콘서트 이후 13년 만이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공연에서는 조용필을 비롯해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백지영, 레드벨벳, 정인, 서현, 알리, 강산에, 김광익 등 총 11명(팀)이 무대에 올랐다. 조용필은 약 40년간 함께한 밴드 '위대한 탄생'과 13년 만에 또다시 평양 무대에 섰다. 그는 '그 겨울의 찻집'을 비롯해 '꿈', '단발머리', '여행을 떠나요'를 불렀다.

김광익의 대표곡인 '푸른 버드나무'를 노래했다. 백지영은 '총 맞은 것처럼'과 '잊지 말아요', 최진희는 '사랑의 미로'와 현이와덕이의 '뒤늦은 후회'를 북한 관객에게 들려줬다. 5인조 걸그룹 레드벨벳은 멤버 조이가 TV 드라마 촬영과 겹쳐 불참하는 바람에 4명(웬디·아이린·슬기·예리)만 참가했다. 이들은 히트곡 '빨간 맛'과 '베드 보이'를 불렀다. 가수들은 공연에서 조용필의 '친구여'와 북한 노래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며 무대를 마무리했다.

예술단은 오는 3일 오후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북한 예술단과 함께 두 번째 공연을 펼친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일보
무등산 음주산행 실태 ▶ 6면
예향 복간 5년
문화 광주 비전 제시 ▶ 16면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새 출발하오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광주 서석교(12회), 서울대 법과대학(88학번)
- 사법시험 38회, 사법연수원 28기
- 전주지법 및 정읍지법, 인천지법 판사
- 서울행정법원 판사
- 영국 옥스퍼드대 연수
- 서울북부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판사
- 광주지법 및 수원지법 부장판사
- 수원지 법안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박용우 올림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삼성생명 서초타워 15, 17, 18층)
■ 대표: 2046-1300 ■ 직통: 2046-0688 ■ 팩스: 3462-1177

광주·전남 미세먼지 나쁨 ☹️

도시와 피부 사이
빈틈없는 시티 선크어
헤라 선 메이트 프로텍터

HERA
SUN MATE PROTECTOR
SPF 50 PA+++
C.M.T. System
Control of UV Top

• 전국 백화점 및 이모레커운셀러를 통해 구입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https://www.hera.com • 고객센터: 080-023-5454